대한민국 청와대

보 도 자 료

국가안보실, 민관군 사이버안보 긴급대책 회의 개최

- JAVA 보안 취약점에 대한 민관군 공동 대응체계 점검 -

국가안보실은 11.17.(화) 「민·관·군 사이버안보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웹 개발 언어인 'JAVA'의 공개 전 취약점 정보를 입수하여 부문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였다.

회의에는 민·관·군 사이버 위기 주관기관인 과기정통부, 국방부,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의 국장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취약점은 전 세계 웹사이트에서 널리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 JAVA에서 발견된 것으로, 공격자가 별도의 인증 없이 임의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어 위험성이 높다. 개발업체인 오라클은 11월 18일 06:30부로 보안업데이트를 공개했다.

안보실은 이번 긴급대책 회의를 통해 공공·민간·국방 부문별 사용 현황과 긴급 보안업데이트 적용을 위한 능동 대응 체계를 점검하였다. 참석 기관들은 위협 정보와 조치 현황을 실시간 공유하며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끝>